

가족이 함께 하는 햇반킵반 쿠킹클래스 진행

CJ제일제당, 13일까지 참가자 모집

CJ제일제당이 오는 13일까지 '가족이 함께 하는 햇반킵반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햇반킵반 가족 쿠킹클래스는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빌딩 내 쿠킹스튜디오 CJ THE KITCHEN에서 2월 21일 진행되며, 만 7세~12세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오는 13일까지 CJ제일제당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와 함께 햇반킵반을 즐겼던 순간'에 대해 댓글을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부모와 자녀 참가자 9팀(1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가족과 함께하는 햇반킵반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CJ제일제당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정식품, 소외된 이웃 위해 모금한 두유 3000개 전달

정식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사랑의 배지미 온도계'를 통해 모금한 두유 3000여개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총 2384명이 참여했다. 정식품은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2400여개를 포함해 총 3000여개의 두유를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과 서울 소재 보육원 2곳(영락보원원, 남산원)에 3차에 걸쳐 전달했다.

정식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사랑의 배지미 온도계'를 통해 모금한 두유 3000여개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식품



블랙야크, 2019 ISPO 어워즈에서 5관왕

블랙야크는 2019 ISPO 어워즈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5년 연속 혁신적인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블랙야크는 지난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 ISPO에서 황금상(Gold Winner) 3개와 제품상(Winner) 2개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수상 중인 강태선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박람회인 'ISPO 뮌헨 2019'에서 ISPO 어워드 5관왕을 차지하며 5년 연속 혁신적인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블랙야크는 지난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 ISPO에서 황금상(Gold Winner) 3개와 제품상(Winner) 2개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블랙야크



이베이코리아, 소방관 치료비 4700여만원 전달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일 옥션 100원 나눔 이벤트를 통한 고액 참여 기금과 옥션 매칭기부금 총액 4700여만원을 장기투병 중인 소방관의 생계 및 치료 지원비로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금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백혈병-림프종암 등으로 장기 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전달된다. 왼쪽부터 이베이코리아 원종건 매니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김철중 상임고문, 이베이코리아 홍윤희 이사, 소방청 신열우 차장, 최병일 소방정책국장,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한상목 사무총장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일 옥션 100원 나눔 이벤트를 통한 고액 참여 기금과 옥션 매칭기부금 총액 4700여만원을 장기투병 중인 소방관의 생계 및 치료 지원비로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참가자 모집

맥도날드, FC서울과 사회공헌활동

맥도날드는 프로축구 구단인 FC서울과 함께하는 '2019년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교실'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교실'은 맥도날드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 축구교실'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축구 프로그램이다. FC

서울의 유소년 코치가 직접 지도하는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아빠와 자녀가 함께 운동을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매년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맥도날드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교실'은 6세에서 13세(초등학교 6학년) 사이의 자녀와 학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박인용 기자

'불만족 리뷰' 명예훼손 처벌 받을까



안 선 영 변호사

사건 파일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광범위한 급급효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보나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법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공연하게 ②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③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① 공공연하게'라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서 유포한 사실이 진실이나 거짓이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사실을 유포했다 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한편 '②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그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가 A에게 채팅창을 통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A가 B의 닉네임인 '축'에 대머리를 지칭하는 은어인 '빠꺼'와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A가 B에 대해 '빠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도, A와 B가 닉네임만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B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빠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참조).

그 외에도 법원은, A가 'B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안에서도 '위 글은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의견으로, 위 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글을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의견표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으로 '③사람의 명예'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 14171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④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대한 불만을 적시한 사례에서 '위 글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내지 의견제공으로써, 사업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내지 의견교환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가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환불 내지 손해배상 요청의 관철과 같은 다른 목적이거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81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도 1039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교환적 성격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 U+ CSR캠페인 영상 '디지털광고제 장관상'

'시각장애인 지원' 편 1311만 조회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 광고제 '2018 엔어워드'에서 자사 CSR캠페인 중 시각장애인 지원 편인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가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농아인아구단 후원 CSR캠페인 '보이나요? 당신의 열정을 향한 세상의 응원' 역시 IT 디바이스 부문 그랑프리 수상, 디지털 광고제에서는 3관왕을 차지



LG유플러스의 시각장애인 지원 CSR캠페인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 영상 캡처. /LG유플러스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도 동영상 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CSR캠페인 고마워, 나에

게 와줘서는 실제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 조현영 씨(39)가 7개월된 아들 유성이를 키우며 경험한 불편함을 U+우리집AI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지난해 2월 공개된 영상은 현재까지 1311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 김희진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은 "빠르고 앞선 기술만큼 그 기술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기술로 소외계층의 일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통신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민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인사

- ◆중소벤처기업부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변태섭 △ 성장지원정책관 원영준 △ 창업진흥정책관 권대수 △ 벤처혁신정책관 오기웅 △ 소상공인정책관 김형영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재홍 ◇ 국장급 임용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영숙
- ◆공항공로 ◇ 실장급 전보 △ 전략홍보실장 백진욱 ◇ 처장급 전보 △ 경영지원처장 이종욱 △ 인재경영처장 김성필 △ IT운영처장 이종훈 △ 영업처장 성효석 △ 고객지원처장 김경순 △ 상호통신처장 정철수 ◇ 역장 전보 △ 김암역장 이순상 △ 인천공항2터미널역장 정용희
-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 전보 △ 관광산업정책관 박영순 △ 국립대학교(파견) 유병채 △ 정책기획관 김영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이영열 ◇ 과장급 승진 △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

도부장 박명혜

- ◆인사혁신처 ◇ 국장급 전보 △ 공무원노사협력관 윤병일
- ◆교보생명 △ 경인방카슈랑스사업담당 박현성 △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이용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중앙회 △ 전략기획본부장 최은숙 △ 자원개발본부장 김효진 △ 나눔사업본부장 정희영 △ 마케팅본부장 김누리 △ 사회공헌본부장 강주현 △ 나눔문화연구소장 노진선 △ 준법감시실장 이경아 △ 서울지회 △ 사무처장 김홍희 ◇ 강원지회 △ 사무처장 김동국 ◇ 경남지회 △ 사무처장 유병철
- ◆문화재청 ◇ 국·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순호 △ 세종연구소 김지성 △ 통일교육원 임형진
- ◆한국정책신문 △ 산업부장 이형교 부국장
- ◆신아일보 △ 산업부 부국장 이상민 △ 산업부 부장 나원재

부음

- ▲전희국씨 별세. 김석동(전 금융위원장·지평인 문화연구소 대표), 김석천(사업) 모친상=7일 8시 1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7호. 발인 9일 10시. 02-3410-6917
- ▲강은주씨 별세. 심형택(현대BS&C 이사)씨 부인상 = 7일 오전 9시4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2
- ▲서명임씨 별세. 오현석(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씨 모친상. 이하중(前 제일은행 지점장)·김수용(前 동서물산 부장)·김도순(삼화회계법인 부대표)씨 장모상 = 6일 오전 3시 1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3410-6914
- ▲민병덕씨 별세. 민성기(전 한국신용정보원장)씨 부친상 = 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3010-2000